

건설경기 침체 광주경제 회복 '걸림돌'

통계청 발표 '2월중 산업활동 동향'

광주, 기아차 생산감소 등 산업생산 다소 둔화 전남, 선박제조업 호조 ... 금속·화학제품 증가

지난달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감소 등의 영향으로 광주의 산업활동이 크게 둔화된 반면 전남은 금속 및 화학제품 생산이 늘어나는 등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방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민간과 공공부문의 건설발주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2월중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산업생산지수는 97.2(2005년=100)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에 비해

11.9%p 급감한 것으로, 2006년 8월(89.2)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광주의 생산활동이 둔화된 것은 설연휴가 전년 대비 길었던 데다 주력산업인 자동차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월중 기아차광주공장의 자동차생산은 신차인 'AM'생산라인 증설공사 등의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해 22.6% 줄었으며, 전자부품 생산도 10.9% 감소했다.

특히 광주는 주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건설발주가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광주의 건설



발주액은 351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2월보다 20.4%(90억원) 줄었다.

광주는 지난 1월에도 건설발주액이 25억3천만원에 그쳐 200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만큼 건설경기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전남은 올 들어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전남의 산업생산지수는 106.1로, 지난해 2월에 비해 8.8% 증가했다. 이는 선박제조업의 호조 속에 철근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금속 및 화학제품 생산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은 2월중 화물선과 철강유조선 생산이 1년 전보다 70.3% 늘었다. 또 철근 품귀 현상으로 인해 열연대강, 방연대강, 아연도강관 등 1차금속 생산이 19.4% 늘었으며, 화학제품 생산도 9.5% 증가했다.

이밖에도 전남은 아파트 등 민간부문의 건설 감소 속에서도 지난달 건설발주액이 5천450억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24.6%(1천74억원) 늘어난 것으로, 도로 및 교량 등 공공부문 공사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국은 지난달 광공업 등 산업생산이 1년 전보다 10.1% 늘어나면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가 한풀 꺾이면서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튜닝 캔버스화 전시

광주신세계백화점 6층 캔버스 매장에서는 3일까지 페인팅·지퍼 등으로 장식한 튜닝 캔버스화 공모 당선작을 전시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경실련 '라면값 담합' 의혹 제기

"광주지역 6개 대형마트 시판 가격 똑 같다"

업체 "판매가 제조사서 결정 ...그럴 리 없어"

광주지역 6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가격이 동일한 것과 관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5~28일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광주 대형마트 6곳에서 파는 라면 13개 제품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일제품의 가격이 모두 똑같았으며, 이는 담합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 입장을 지난 달 31일 밝혔다.

광주경실련에 따르면 봉지면 6개 제품에 대한 분석결과 홈플러스 동광

점점의 신라면 3천원(5개 묶음), 짜파게티 3천400원, 너구리 3천200원, 안성라면 2천800원, 진라면 2천980원, 삼양라면 2천980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계림점, 이마트 동광점·봉선점, 롯데마트 상무점·월드컵점 등 다른 점포의 봉지면도 모두 똑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고 6개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용기면 7개 제품의 가격도 동일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각기 다른 마트에서 판매되는 같은 제품의 라면가격

이 동일한 것은 담합으로 인한 현상일 수 있다"며 "이는 유통업체간 경쟁으로 상품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소비자들의 알뜰소비를 돕는 '오픈 프라이스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라면의 경우 희망 판매가가 제조업체에서 결정된 이후 유통업체들이 각기 희망 판매가 범주내에서 최저가 경쟁을 하게 돼 있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다"면서 "업체마다 치열한 경쟁과 시장조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풍수해보험' 가입지역 전국 확대

오늘부터 주택·축사 등 피해면 보험금 지급

1일부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삼성화

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3개 풍수해보험 사업자가 보험가입지역을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온실·축사 등

시설물이 태풍이나 호우·홍수·강풍·대설 등으로 파손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지금까지는 전국 31개 시·군·구 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손보사들은 풍수해보험의 가입률

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단일 상품이었던 풍수해보험을 3가지로 다양화했으며 개별 가입 외에 단체 가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가입대상 시설물별로 정부가 정해놓은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급여 방식 뿐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실손보상 방식도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중소가 원하면 어디든 달려간다"

광주·전남중기청 '1357 현장기동반' 발대식

중소기업이 원하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거나,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현장에로신고센터'에 신고하면 7일 내에 중기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이 지난달 31일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현장으로 해결사인 '1357 현장기동반' 발대식을 갖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이날 박춘근 청장을 반장으로 총괄분석팀을 비롯해 현장조사 A팀(수출·관로·자금·인력)과 B팀(기술·시험·소상공인) 등 18명의 기동반을 발족한 데 이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여 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현장으로 해소지원단(단장 박성수 전남대교수)을 결성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애로신고 및 발굴→현장기동반 즉시 해결→복합사항 유관기관 협의→중기청 이관 등 절차를 통해 늦어도 7일 이내



지난달 31일 발대식을 가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1357 현장기동반'과 중소기업인들이 중기청 현관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 제공>

에 현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박춘근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지방청이나 지원단의 한계를 넘는 사안은 분청에 올려 해결하는 등 중

기청이 '중소기업 도우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국세청장에 김기주씨

국세청 지방청장 인사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광주지방국세청장에 김기주(54·사진) 국세청 감사관을 임명했다. <명단 20명>

강원도 명주 출신인 김 청장은 1983년 사관(육사 33기)특채 7기로 국세청에 입문해 군산세무서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또 국세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에 김재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채경수 국세청



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 허병익 국세청 조사국장을 발령했다.

국세청 감사관에는 박의만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국세청 법무담당국장에 김남문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김창섭 대전청장을 임명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수산물 원료 구매자금 지원규모 대폭 늘린다

수산물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산물원료 구매자금' 지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올해 원료 구매자금 신청규모가 1천94억원으로 지원예정액 623억원을 471억원 초과함에 따라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수산물원료 구매자금은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국내산 수산물 원료를 유통·제조·가공하는 업체에게 1~2년동안 연이율 4%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이다. <연합뉴스>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수세기소라·세계보청기

1388-8426 / 02-722-0100

11215300-9318